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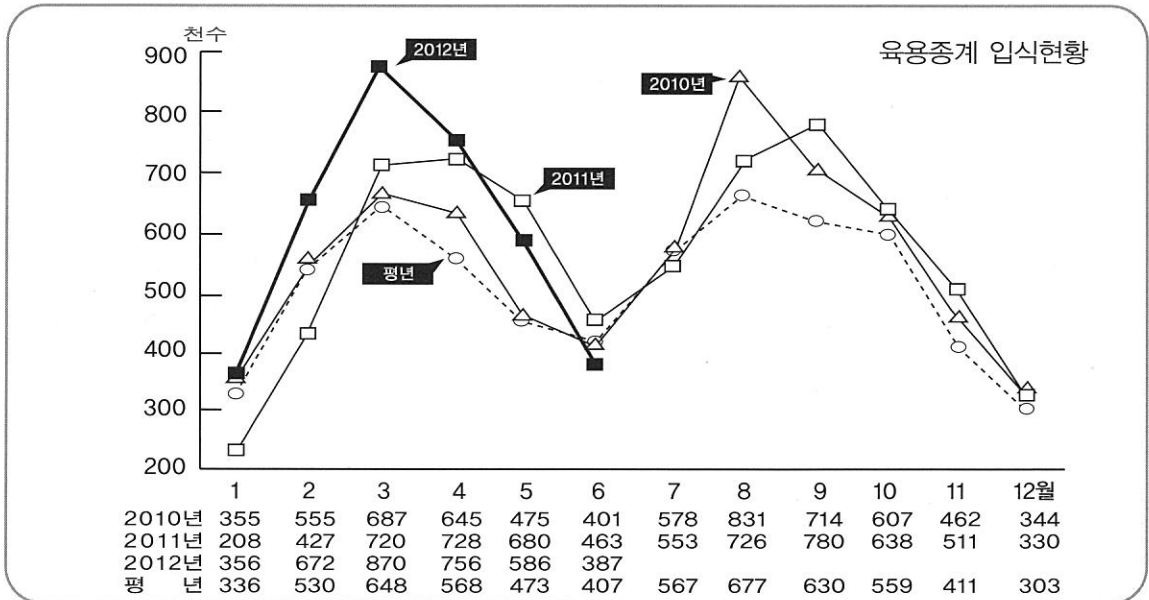


8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6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

- 지난 6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38만6천8백수로 전년동기(46만3천수) 대비 16.5% 감소했으며, 이는 평년수준(40만7천수) 대비 5.0% 감소한 수준이다(5월 58만6천3백수 대비 34.0% 감소).
- 지난해 5월에 이어 6월 역시 전년동기 대비 입식수수가 감소했으나 6월까지의 누계는 363만수로 여전히 전년동기(323만수) 대비 12.4%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계 사육수수도 전년대비 2.4% 증가한 678만수로 추정되고 있어 병아리 생산량은 당분간 많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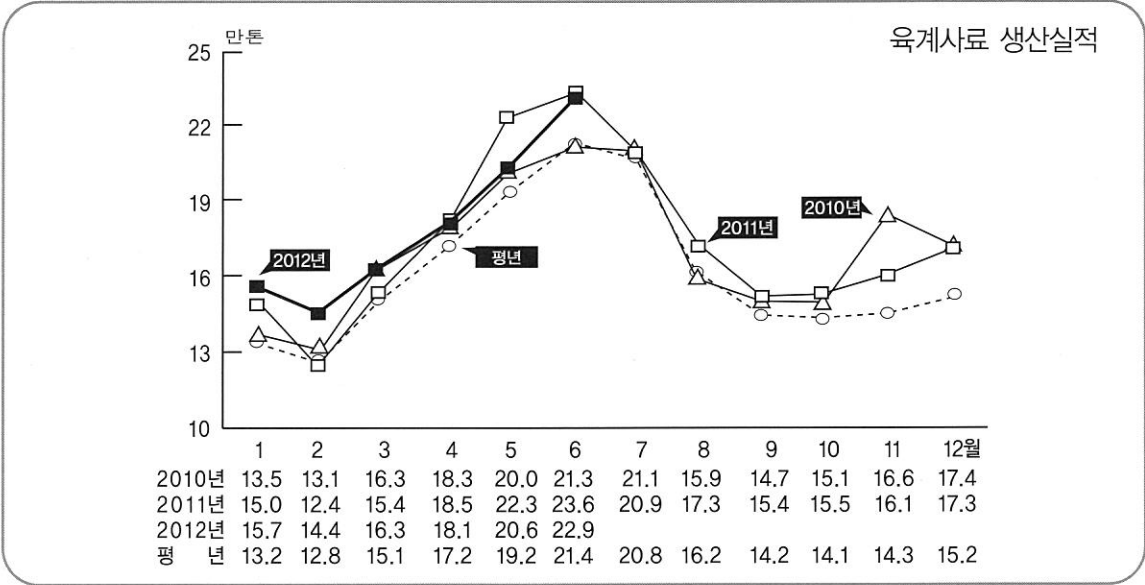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7~2011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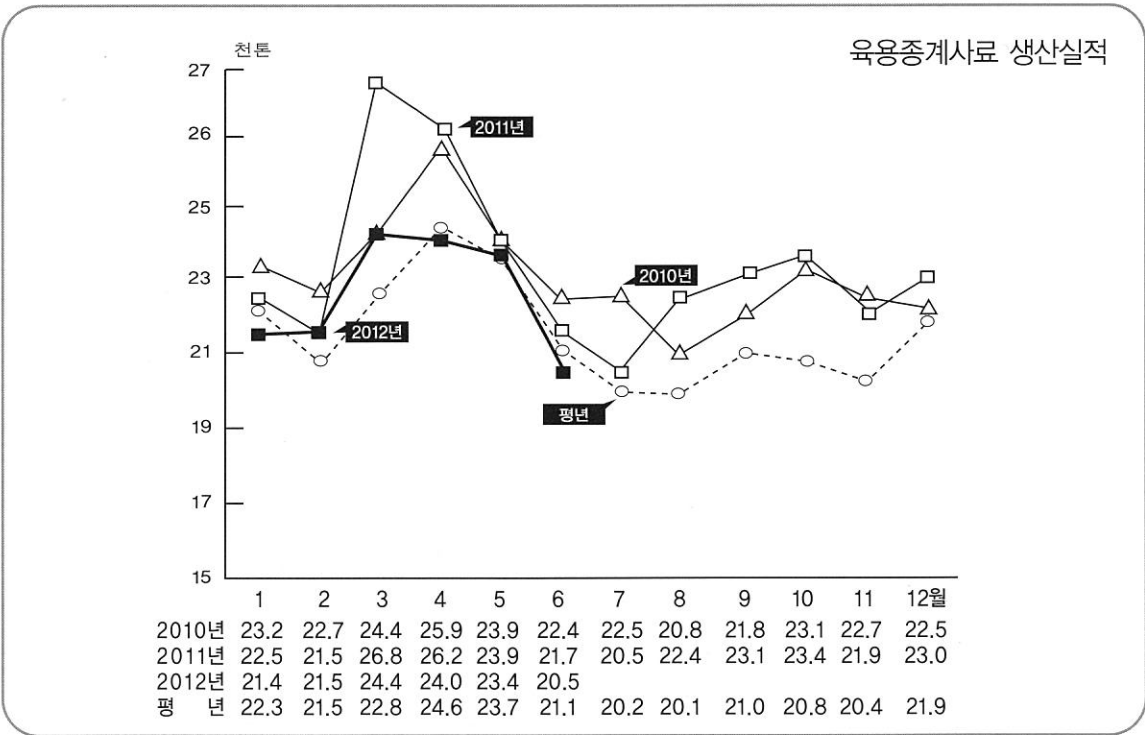
❖ 8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

- 8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6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0,510톤으로 전년동월(21,659톤) 대비 5.3% 감소했으며, 전월(23,358톤) 대비해서도 12.2% 감소했다. 이는 최근 종계 입식수수는 감소하고 있고 종계노계 도태수수는 증가하고 있어 산란계군이 감소한 것과, 종계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사료섭취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육계 사육수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6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228,669톤으로 전년동월(235,744톤) 대비 3.0% 감소했으며, 전월(206,349톤) 대비해서는 5.9% 증가했다. 육계 역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사료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육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보다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 : 평년은 2007~2011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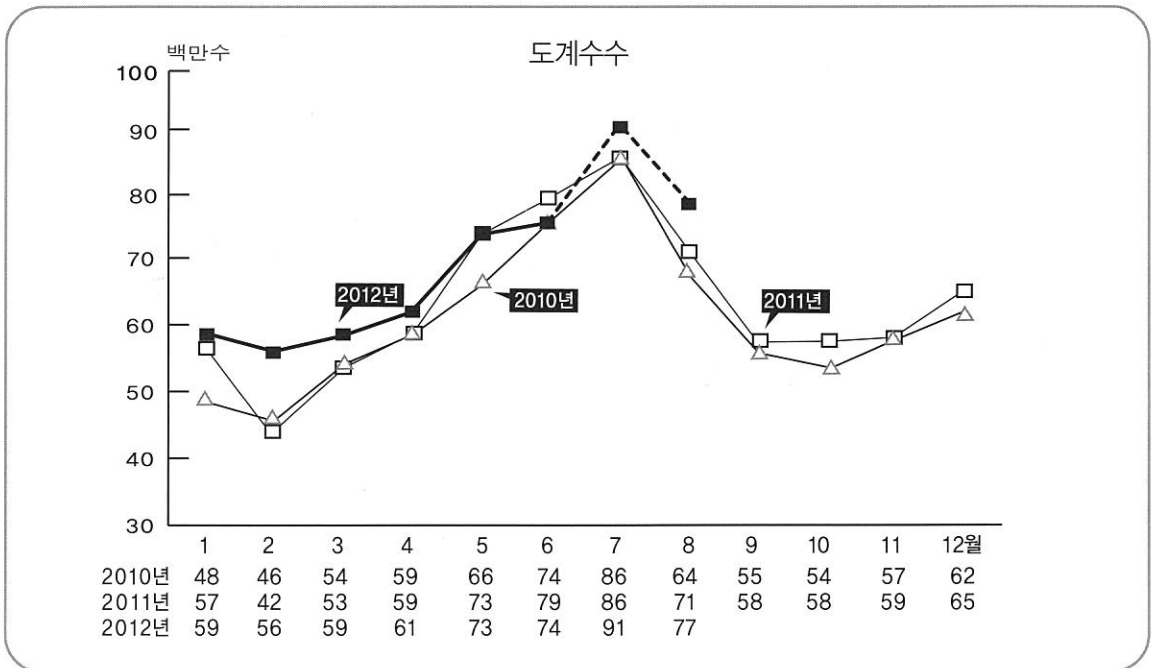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7~2011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 도계수수

❖ 8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지난 6월의 도계수수는 7,389만수로 전년동월(7,944만수) 대비 7.0% 감소했으며, 전월(7,347만수) 대비해서는 0.6% 증가했다.
- 8월에는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도계수수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7월보다는 감소하겠으나 전년동기보다는 증가한 7,726만수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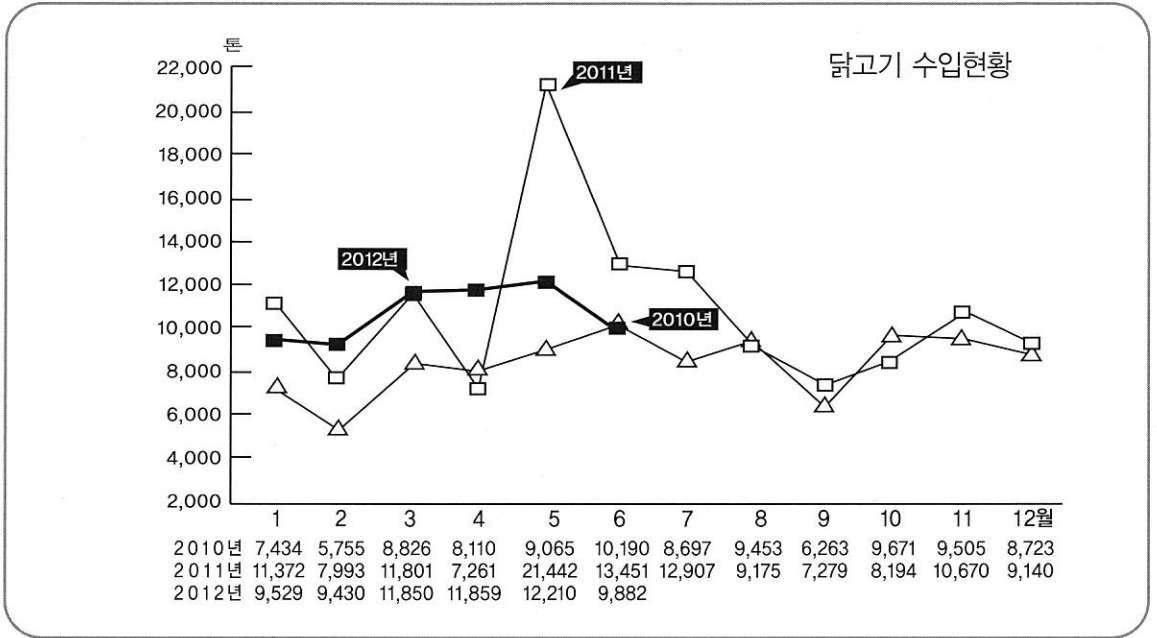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2년 7~8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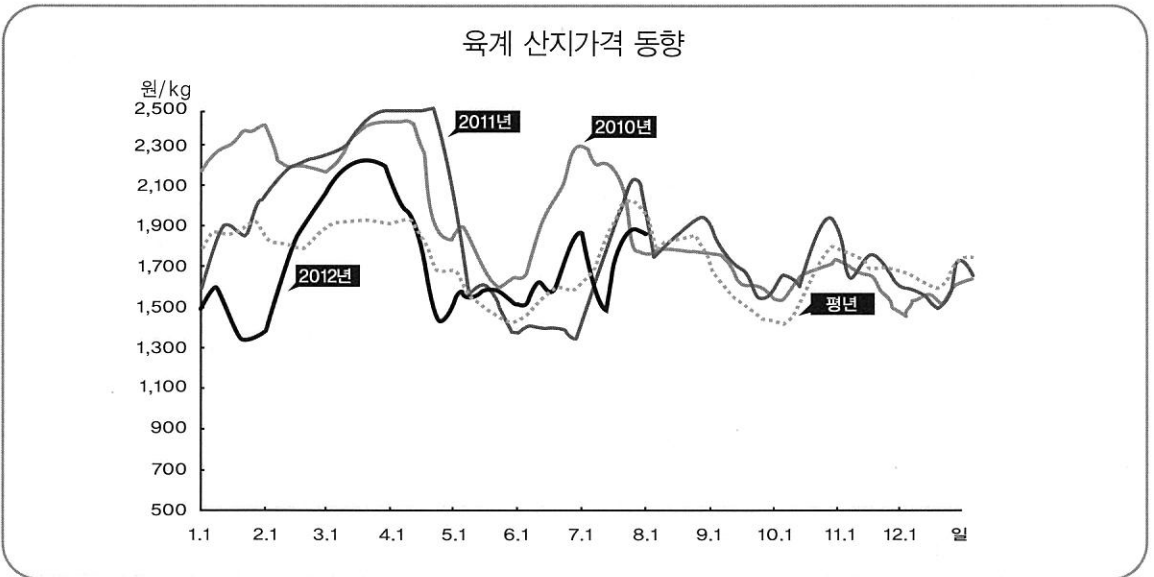
❖ 8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지난 6월에는 9,882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13,451톤) 대비 26.5% 감소했으며, 전월(12,210톤) 대비해서는 19.1% 감소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9,812톤으로 전년동월(11,298톤) 대비 13.2% 감소했으며, 전월(14,519톤) 대비해서도 32.4% 감소했다.
- 닭고기 수입량은 닭강정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브라질산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입된 물량 상당량이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며, 국내산의 냉동비축물량도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참고여력이 없어 추가적인 수입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량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주 : 평년은 2007~201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8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700~1,900원 전망

- 7월의 경우 초복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초복을 전후하여 비가 내리면서 소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7월(1~31일)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759원을 나타냈다(전년 7월 1,910원 보다 7.9% 하락, 평년가격 1,933원 보다는 9.0% 하락, 전월 1,668원보다 5.5% 상승).
- 8월의 경우 공급량의 큰폭의 증가가 예상됐으나 7월 하순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무더위로 인한 폐사와 증체 지연이 공급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말복을 전후해 수요가 살아났고, 올림픽에서 기대이상의 선전을 펼치면서 소비증가에 영향을 주면서 육계 산지가격은 전월보다는 상승하나 전년 및 평년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1,700~1,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8월 가격은 1,865원, 평년가격은 1,829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6. 18~6. 24	8,946	10,036	112.2%	3,749	5,500	146.7%	4,310	5,600	129.9%	1,792	1,637	91.4%
6. 25~7. 1	8,909	9,830	110.3%	4,106	5,436	132.4%	4,170	4,659	111.7%	1,979	1,420	71.8%
7. 2~7. 8	8,648	9,458	109.4%	4,532	5,467	120.6%	3,451	3,366	97.5%	1,525	1,402	91.9%
7. 9~7. 15	8,053	9,108	113.1%	4,290	5,543	129.2%	2,549	2,204	86.5%	1,464	1,323	90.4%
7. 16~7. 22	8,087	8,823	109.1%	4,213	5,695	135.2%	1,699	2,151	126.6%	2,026	1,263	62.3%

7. 결론

- 8월에는 초순에 말복 수요가 있어 비가 왔던 초복에 비해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성 저하와 열사피해 등으로 인해 공급량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 야식소비가 증가하여 시세는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1,700원~1,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여전히 생산잠재력은 높은 상황이어서 무더위가 일찍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질 경우 생산성 회복으로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소비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예상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무더위로 인한 증체지연, 열사피해 등으로 잠재력 대비 공급량 감소	- 늦더위로 인한 수요 증가 -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인한 수요 증가
하락요인	- 잠재력 및 공급량 전년동기 대비 증가 - 냉동비축 물량 수준 최고치, 수입량 증가	- 중순 이후 비수기 접어들면서 수요 급감